

대학생의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물질주의의 관계: 자기 불일치, 자존감 안정성의 매개효과*

신 지 윤¹⁾

설 경 옥[†]

본 연구는 Donnelly 등(2016)의 물질주의 추구에 대한 도피이론을 적용하여 대학생의 물질주의 추구 과정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도피이론에서 제시된 6단계 중 높은 삶의 기준에 비추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1단계를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으로, 부족한 자신을 비난하는 2단계를 실제-이상적 자기 간 불일치로, 자신을 혐오적으로 인식하는 3단계를 낮은 자존감 안정성으로 개념화하였다. 이상의 도피이론 3단계에 따라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자기 불일치와 자존감 안정성을 매개로 물질주의를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설 확인을 위해 대학생 465명(여 262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물질주의의 간 관계에서 자기 불일치의 매개효과 및 자기 불일치와 자존감 안정성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물질주의에 대한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의 직접효과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능력주의 한국 사회에서 대학생이 물질을 좇게 되는 과정을 도피이론을 적용하여 경험적으로 밝힌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물질주의,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 자기 불일치, 자존감 안정성, 도피이론

* 본 논문은 신지윤(2020)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되었음.

1)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생

† 교신저자: 설경옥,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Tel: 02-3277-3918, E-mail: koseol@ewha.ac.kr



Copyright ©2022,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물질주의는 돈이나 물질이 삶의 중요한 목표이자 성공의 지표이며 자신을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는 삶의 태도다(Richins & Dawson, 1992). 인간은 자연스럽게 물질적 소유를 바라고 그로부터 기쁨을 느끼며 물질은 일상의 동기가 되기도 한다(Donnelly, Ksendzova, Howell, Vohs, & Baumeister, 2016). 그러나 삶의 도구로 물질을 원하는 것을 넘어 물질 추구가 다른 삶의 가치를 압도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물질주의는 낮은 주관적 안녕감(Dittmar, Bond, Hurst, & Kasser, 2014), 낮은 자존감(설경옥, 박민경, 안은지, 김지영, 백상은, 2019), 낮은 대학생활 만족도(김경미, 2014), 불안 및 우울(최병섭, 이지연, 2019)을 예측한다. 이러한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에게 물질주의는 친숙한 가치다. 경제성장에 따라 탈 물질주의로 나아가는 서구와 달리 한국인의 물질주의 성향은 경제성장과 상관없이 유지되어 왔으며(박재홍, 강수택, 2012) 한국인은 미국인, 중국인, 인도인보다 물질주의가 더 높았다(Cho, Jin, & Watchravesringkan, 2016; Flynn, Goldsmith, & Kim, 2013).

국내에서는 물질주의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학업성취압력과 같은 부모의 양육태도(김유연, 박성연, 2001; 조하정, 이다예, 박선웅, 2021), 불확실한 정체성(박선웅, 박예린, 2019), 완벽주의와 낮은 자존감(설경옥 등, 2019) 그리고 대인관계 문제(박진영, 최혜원, 서은국, 2012)가 연구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예측변인과

물질주의 간 관계에서 낮은 자존감을 매개변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 외 매개변인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때 도피이론은 구체적인 설명의 틀과 함께 개입의 단서를 제시한다. 도피이론(Baumeister, 1990)은 본래 자살에 이르는 심리적 과정을 6단계로 설명한 이론으로, 자살 외에도 여러 파괴적 행동에 적용되어 왔다. 이후 Donnelly 등은 도피이론을 물질주의 추구 과정에 적용하였고 그림 1에 제시한 각 단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Donnelly et al., 2016). 1단계로 물질주의가 높은 개인은 비현실적으로 높은 삶의 기준에 미달하여 좌절과 실망을 빈번하게 경험하고, 2단계로 부족하게 느껴지는 자신을 비난한다. 3단계로 높은 자의식으로 인해 부정적 자기상에 집중하게 되어 4단계로 불쾌한 정서를 느끼게 된다. 이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5단계로 장기적인 사고보다 당장의 쾌락에 집중하며 근시안적으로 사고하게 된다. 그 결과, 6단계로 충동구매 등 무절제한 행동을 통해 기존의 자아에서 벗어나 일시적인 안도를 경험한다. 즉, 이상에 비추어 실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낀 개인은 자기비난과 불쾌한 정서에서 도피하기 위해 물질을 추구하게 된다.

Donnelly 등(2016)은 다수의 물질주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이론을 개발했으나, 이후 이 이론을 실제 물질주의 추구 현상에 적용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설경옥 등(2019)은 일련의 과정을 국내에서 처음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여대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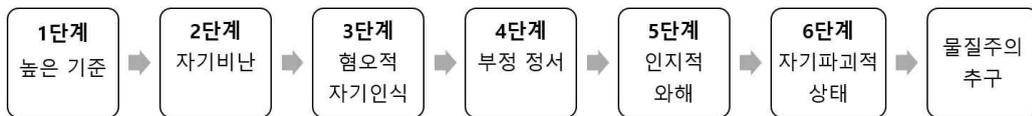


그림 1. Donnelly 등(2016)의 도피이론 6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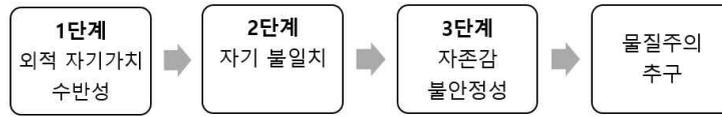


그림 2. 본 연구의 도피이론 3단계

높을수록 자존감이 낮은데(1단계),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부정 정서에서 도피하기 위해 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과정(2단계)을 밝혔다. 그러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자존감 외에도 도피이론 각 단계에는 다양한 변인이 해당될 수 있으며, 생략된 나머지 단계가 밝혀져야 구체적인 과정을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단계였던 선행연구의 검증 단계를 3단계로 확장하고 각 단계에 새로운 변인을 적용하여 Donnelly 등(2016)의 도피이론의 경험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생의 물질주의에 개입하기 위한 단서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남녀 대학생이 물질주의를 추구하게 되는 과정을 도피이론의 1, 2, 3단계로 검증한 본 연구에서는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개인일수록 삶의 기준을 높게 설정하고(1단계) 수반성과 실제 자기 간 불일치를 인식하며 자기를 비난한다고 보았다(2단계). 이어서 자존감이 불안정한 느낌을 경험한 결과(3단계) 발생하는 부정 정서에서 도피하기 위해 물질주의를 추구하게 되는 과정을 검증하였다. 이 3단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물질주의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영역은 저마다 다르다. 특정 영역에서의 성공 및 실패 경험에 따라 자기평가가 달라질 때 자존감이 해당 영역에 수반되어 있다고 한다. 자기가치 수반성(contingencies of self-worth)은 특정 영역에

서의 성공 및 실패 경험에 따라 자존감이 변하는 정도이다(Crocker & Wolfe, 2001). 수반성의 영역은 크게 외적 영역과 내적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외적 영역이 타인의 인정 및 객관적 기준에 의해 평가된다면 내적 영역은 평가의 근거가 타인보다는 자신에게 있다. 외적 영역에는 사회적 평판, 경제력, 학업성취 등이 해당되며 내적 영역에는 종교적 사랑 등이 해당된다(Crocker, Luhtanen, Cooper, & Bouvrette, 2003). 이때 외적 영역에 수반된 자존감은 내적 영역에 수반된 자존감보다 더 취약한데(Deci & Ryan, 2000), 외부의 존재로부터 지속적인 타당화를 받아야만 자존감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관심 변인은 자기가치 수반성 가운데 외적 영역에 대한 자기가치 수반성이다. 이동귀, 양난미와 박현주(2013)는 국내 성인의 자존감 평가영역을 사회적·객관적 능력, 긍정적 성품, 대인관계, 가족의 네 영역으로 구분했다. 이중 사회적·객관적 능력 영역은 학벌, 학업성적, 직업, 경제력 등을 포함하며 외적 영역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간명함을 위해 사회적·객관적 능력에 대한 자기가치 수반성을 이하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으로 칭하였다.

Donnelly 등(2016)의 도피이론 1단계에 따르면 물질주의가 높은 개인은 미디어 등으로 접하는 높은 기준과 자신의 생활을 비교하며 수입, 성취 등 삶의 여러 방면에서 결핍을 느낀다. 그리고 특정 재화를 구매함으로써 삶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믿는다. 외적 자기가

치 수반성은 이러한 1단계에 해당하는 변인으로, 높은 삶의 기준을 설정하여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배경이 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외적 영역에 자기가치가 수반될수록 그 영역에서 높고 완벽한 기준을 세워 성취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최대성, 황순택, 2016; Crocker & Park, 2004). 중요한 영역에서 높은 기준을 세우고, 기준에 미달하면 자신을 가혹하게 평가한다는 면에서 자기가치 수반성은 완벽주의와도 관련된다(Bardone-Cone, Lin, & Butler, 2017). 따라서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개인은 해당 영역에서 높은 성취기준을 세우고 쉽게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피이론에 따라 개인이 물질을 통해 이러한 부족함을 극복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제로 외적 영역에 대한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을수록 물질주의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험적 근거가 존재한다. 대학생 관련 연구에서 연예인을 숭배하고 외모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내재화하는 경향이 물질주의와 정적 상관성이 있었으며(설경옥, 황다솔, 홍성혜, 주리나, 2017) 외모, 경쟁, 학업적 유능, 타인 승인 등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을수록 돈에 대한 열망이 높았다(Sabzehara, Ferguson, Sarafraz, & Mohammadi, 2014).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은 물질주의를 정적으로 예측했을 뿐 아니라(Zhang, Hawk, Oprea, de Vries, & Branje 2020) 실험연구에서도 외모 수반성을 집화한 집단이 내부 수반성 집단보다 고가의 물품 사진을 유의하게 더 많이 골랐다(Nagpaul & Pang, 2017). 사회적 승인, 외모, 수행에 대한 자기가치 수반성은 충동구매 경향과도 정적 상관성이 있었다.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사회적 자아를 중시했으며 부정적 평가에 대한 염려가 높았고, 이 관계는 개

인의 불안 수준이 높을 때 충동구매 경향으로 이어졌다(Roberts, Manolis, & Pullig, 2014). 즉,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불안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적으로 승인받기를 원하고 이상적 자기에 가까워지기 위해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물질주의를 예측할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자기 불일치와 물질주의

Donnelly 등(2016)에 따르면 도달할 수 없는 높은 목표를 추구하는 개인은 이를 이루지 못했을 때(1단계) 자신의 부족함을 내부로 귀인한다(2단계). 이때 2단계에 해당하는 변인으로 자기비난, 낮은 자존감, 부적절감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실제 자기평가 간 불일치로 개념화했다. 이때 자기 불일치는 외적 영역의 성패에 근거해 자기가치를 확인하지만 실제 자기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로,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반추하고 자책하게 한다(Mason et al., 2019). 본 연구 변인은 이수란과 이동귀(2008) 및 최대성과 황순택(2016)의 방식을 따라 개인이 외적 영역에 부여한 상대적 중요도에서 실제 만족도를 빼 값으로 측정하였다. 중요도와 만족도 간 차이 값이 클수록 외적 영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 실제 자기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자기개념을 이루는 요소들이 서로 통합되지 않아 갈등을 겪는 상태라고 정의한 Higgins(1987)의 자기 불일치 개념과 유사한 의미다. Higgins의 자기 불일치 이론에서는 자기가 실제 자기, 이상적 자기, 당위적 자기의 세 차원으로 구분되며 자기 불일치의 종류에 따라 우울과 불안의 부정적 정

서를 예측한다고 이론화했다. 그러나 경험적 후속 연구 결과, 자기 불일치 유형에 따라 우울과 불안 경험이 구분되기보다는 부정적 정서가 전반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Mason et al., 2019). 자기가치 수반성과 자기평가 간 불일치는 Higgins의 자기 불일치와 같이 우울, 불안, 속박감 등 전반적인 부정 정서를 예측한다고 알려져 있다(김대현, 박기환, 2019; 최대성, 황순택, 2016).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기 불일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전반적인 불일치 점수를 측정했으며, 간명함을 위해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실제 자기평가 간 불일치를 이하 '자기 불일치'로 칭하였다.

높은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으로 인해 자신의 부족함을 느낀 개인은 그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고,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의 간극에 집중하며 부족함을 더욱 크게 느낄 것이다. 그리고 물질을 추구함으로써 부족함을 극복하려고 할 것이다. 자기가치 수반성은 해당 영역에서의 강한 성취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수반성과 실제 자기평가 간 불일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Crocker, 2002). 우선 지나치게 높은 기준으로 인해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우월성, 유능함, 타인승인 영역의 자기가치 수반성은 완벽주의 차원과 정적 상관관이 있었는데(Hill, Hall, & Appleton, 2011) 이처럼 외적 영역의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을수록 그 영역에서 높은 기준을 세우므로 이상과 실제 결과의 불일치를 경험하기 쉽다(최대성, 황순택, 2016; Crocker & Park, 2004; Hewitt & Dyck, 1986). 높은 자기가치 수반성이 실제 수행을 방해하여 자기 불일치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개인일수록 성공과 실패에 민감하여 수행 상황에서 높은 스트

레스와 불안을 느끼고, 부정적 정서를 처리하는 데 에너지가 쓰이므로 인지 수행 능력도 떨어진다(Crocker & Knight, 2005). 또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 도전하기보다 회피하는데, 그 결과 장기적으로 과업에 숙달될 기회가 부족하여 수행이 저조해질 가능성이 있다(Crocker & Park, 2004).

자기 불일치가 높은 개인일수록 물질주의 추구 경향성도 높다(Reeves, Baker, & Truluck, 2012).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자기 불확실성(feelings of insecurity)의 경험이다(Kasser, Ryan, Couchman, & Sheldon, 2004). 자기 불일치는 자기상이 통합되지 않아 갈등을 겪는 상태로, 불확실한 감정을 낳는다. 개인은 되고 싶은/되어야 한다고 믿는 자기와 실제 자기의 모습이 불일치할 때 자기 결핍을 느끼고,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최소화하려는 동기를 갖게 된다(Higgins, 1987). 이때 물질적 가치는 이상과 실제의 간극을 좁혀주는 자기 고양의 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물질주의는 자기 고양 가치와 정적 상관관이 있었으며(Kilbourne & LaForge, 2010) 물질주의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외모나 부유함을 돋보이게 하는 품목에 과시적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Fitzmaurice, 2008). 물질을 소유함으로써 즉각적인 힘을 느끼고 정체성을 찾을 수 있기에(Dittmar, 2005; Nagpaul & Pang, 2017) 사람들은 자기개념이 명확하지 않거나 실존적, 경제적, 대인 관계적 위협을 느낄수록 텅 비고 불완전한 자기를 보상하기 위해 물질을 더 많이 추구하였다(Reeves et al., 2012).

물질주의 가치 추구 및 상징적 소비는 개인이 자기 정체성을 찾고 유지하는 수단이다(Deci & Ryan, 2000). 물질의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특성으로 인해 물질의 소유자는 자기가

명확해지고 확장되는 느낌을 받으며(Belk, 1988) 상품을 통해 더 나은 외모와 더 나은 관계, 나아가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믿는다(Dittmar, 2005). 그 예로 실제-이상적 자기 간 불일치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지위와 관련된 물품을 구매할 때 더 큰 행복을 느꼈고(Yu, Jing, Su, Zhou, & Nguyen, 2016) 이 관계는 실제-이상적 자기 불일치를 줄이고자 하는 목표 추구에 의해 매개되었다. 다른 연구에서 실제-이상적 자기 간 불일치가 큰 성인일수록 자기 고양 욕구가 컸고 이는 모조 명품 구매 경향을 예측하였다(Shan, Jiang, Peng Cui, Wang, & Ivzhenko, 2021). 즉, 실제-이상적 자기 불일치를 많이 느낄수록 자신을 더 괜찮은 사람으로 느끼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데 쉽게 접근 가능한 모조 명품은 그 수단이 되었다. 또한, 충동구매는 상품을 통해 자기 불일치를 줄이고 이상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행동의 일환으로 물질주의와 강한 상관성이 있는데(Moulding, Duong, Nedeljkovic, & Kyrios, 2017) 실제-이상적 자기 간의 불일치가 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충동구매를 많이 하였다(Dittmar, 2005). 종합하면 사람들은 물질을 추구함으로써 자기 불일치에서 오는 결핍감을 해소하려고 하며, 본 연구에서도 자기 불일치가 물질주의를 예측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존감 안정성의 매개

도피이론에 따르면 1단계에서 지나치게 높은 삶의 기준을 설정해 좌절하고 실망한 개인은 2단계에서 부족하게 느껴지는 자신을 비난하고 3단계에서 자의식이 높아지면서 부족해 보이는 자기 모습에 과도한 신경을 쓰게 된다(Donnelly et al., 2016). Donnelly 등

(2016)은 3단계에 해당하는 변인으로 공적 자의식, 자기감시 등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낮은 자존감 안정성을 도피이론 3단계로 개념화하였다.

자존감 안정성은 자존감의 다양한 차원 중 하나로, 개인의 자존감이 자기 외부의 관계적, 환경적 변화나 내부의 정서적 요인에 의해 변화하지 않는 정도이다(장재원, 신희천, 2011). 자기가치 수반성이 클수록 개인에게 중요한 영역에서 경험하는 성공, 실패 사건에 따라 자존감이 흔들리기 때문에 자기가치 수반성은 자존감 안정성의 선행요인으로 여겨진다. 자존감이 유지, 고양되려면 자존감이 특정 영역에 수반되어 있으면서 해당 영역에서 성공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김민정, 2016). 반대로 실패를 경험할 때 해당 영역에 수반된 자존감은 하락한다. 일상 경험에 따라 자존감이 흔들리는 정도가 클수록 자존감이 불안정하다고 여겨진다(Kernis, 2005). 자존감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주변 환경이나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넓은 의미에서 취약한 자기(fragile self)는 위협에 취약하여 지속적인 타당화를 필요로 하는 자기가치감을 뜻하는데(Jordan & Zeigler-Hill, 2020), 자존감이 불안정한 사람은 취약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의 승인을 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Noser & Zeigler-Hill, 2014) 도피이론 3단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클수록 높은 성취 기준과 수행 부담으로 인해 자기 불일치를 경험하기 쉽다. 이때 중요한 영역에서의 자기 불일치 경험은 개인에게 실패나 위협으로 간주되며 부정적인 자기초점을 유발한다(Mason et al., 2019). 자기확신이 줄고 타인의 평가에 더욱 의존하게 된 개인은 외부 사건에 따라

불안정한 자존감을 경험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실제 자기와 이상적/당위적 자기 간 불일치가 클수록 자존감 안정성은 낮았다(정선태, 홍혜영, 2016). 대학생의 실제 자기와 이상적/당위적 자기 간 불일치는 자존감 안정성을 직접 예측하거나 타인인정욕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예측하기도 하였다(한동현, 조영아, 2017). 간접효과는 자기 불일치가 클수록 타인으로부터 승인받고 싶은 욕구가 커지므로, 타인의 평가에 따라 자존감이 흔들림을 의미한다. 특히 자기가치가 타인 승인, 외모, 경쟁, 학업적 유능감 등 외적 영역에 수반될수록 자존감은 요동치기 쉬워 더욱 취약해진다(Crocker et al., 2003). 외적 영역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데(Crocker, Sommers, & Luhtanen, 2002) 현실에서 개인은 타인의 평가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개인일수록 자기 불일치를 더 크게 경험하여 자존감이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안정한 자존감으로 인해 불편한 상태가 된 개인은 외부의 확인을 구해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때 물질은 개인의 정체성과 이미지 구축을 효과적으로 돕는 수단이다. 따라서 자존감이 불안정한 사람은 물질 추구를 통해 자기개념의 결핍을 보상하고 불쾌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이다. 그 예로 자존감 안정성은 같은 시점 및 5주 뒤 측정된 물질주의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Zhang & Hawk, 2022). 그밖에 자존감 안정성과 마찬가지로 취약한 자기를 나타내는 변인들이 물질주의를 예측했는데 자기 가치에 대한 양가 감정이 클수록, 즉 자신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공존할수록 물질주의가 높았다(Frost, Kyrios, McCarthy, & Matthews, 2007). 자

존감이 높더라도 불안정한 사람은 자기 의심을 감추고 취약한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 물질과 같은 외적 가치에 기대기 쉽다. 그 예로 외현적 자존감이 내현적 자존감보다 높을 경우, 일치하는 경우보다 물질주의 수준이 높았다(Park & John, 2011). 자존감이 높고 불안정한 사람은 높고 안정적인 사람보다 명성과 같은 외적 가치를 더 열망했으며(Noser & Ziegler-Hill, 2014) 높고 불안정한 자존감인 나르시시즘 수준이 높을수록 고급 물품 구매를 더 많이 선택했다(Cunningham-Kim & Darke, 2011). 종합하면 자기평가가 비일관적이거나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은 물질을 추구함으로써 취약한 자존감을 보호, 유지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존감 안정성은 물질주의를 부적으로 예측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3의 연구모형과 같이 대학생의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직접 및 간접적으로 물질주의를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때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은 개인일수록 자기 불일치가 높고, 이어서 자존감 안정성이 낮아진 결과 물질주의를 더 많이 추구하게 될 것으로 보였다. 동시에 선행연구 결과를 근거로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 자기 불일치, 자존감 안정성, 물질주의 간의 직접경로 및 간접경로 또한 유의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의 주요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물질주의의 관계를 자기 불일치, 자존감 안정성이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을수록 자기 불일치가 높고, 자기 불일치가 높을수록 자존감 안정성이 낮아 결과적으로 높은 물질주의를 예측할 것이다. 둘째,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은 물질주의를 정적으로 예측할 것이다. 셋째, 자기 불일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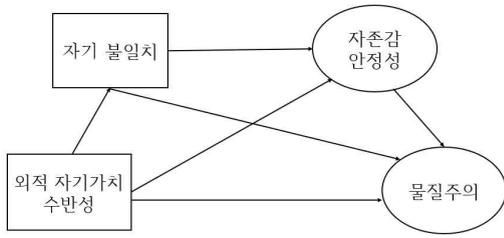


그림 3. 연구모형

물질주의를 정적으로 예측할 것이다. 넷째,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은 자기 불일치를 매개로 물질주의를 유의하게 예측할 것이다.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자존감 안정성을 직접 예측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자존감의 변화는 자존감 수반성과 실제 성취경험이 모두 고려될 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 법

연구대상

만 18세 이상 남녀 대학생 46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참여자는 온라인 및 한 대학의 심리학 강의에서 모집하였다. 참여자에게는 보상으로 3,200원 상당의 커피 기프티콘이 제공되었고, 강의를 통해 참여한 경우 연구 참여 점수가 주어졌다. 응답자 가운데 설문지 완료 시간이 2분 이하이며 기계적으로 같은 리커트 점수에 응답한 1명의 보고를 제외하고 총 465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은 262명(56.3%), 남성은 203명(43.7%)이고 평균 연령은 23세였다. 학년은 대학 1학년 99명(21.3%), 2학년 108명(23.2%), 3학년 101명(21.7%), 4학년 128명

(27.5%), 5학년 이상 29명(6.2%)이었다. 서울 소재 대학이 365명(78.5%)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인천 지역이 41명(8.8%), 비수도권 지역은 59명(12.7%)이었다. 용돈,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월평균 수입은 평균 61.6만 원($SD=52.16$ 만 원)이었다.

측정도구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동기, 양난미와 박현주(2013)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한국인 자존감 평가영역 척도를 사용하였다. 네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사회적·객관적 능력(예: 학벌, 학업성적, 직업, 경제력) 15문항, 긍정적 성품(예: 배려, 자신감) 7문항, 대인관계(예: 친구관계, 연인관계) 4문항, 가족(예: 가족구성원, 집안 분위기) 3문항의 총 29문항이며 같은 문항에 대하여 중요도와 만족도를 각각 측정할 수 있다. 그 중 사회적·객관적 능력 중요도 척도를 사용하여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을 측정하였다(예: 학벌은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부터 ‘매우 중요하다(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영역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에 근거하여 자존감을 평가하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변인으로 쓰인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은 사회적·객관적 능력 중요도의 평균 점수에서 전체 중요도의 평균 점수를 빼 값으로 측정하였다(Han, Kim, & Park, 2018).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객관적 능력 중요도의 신뢰도 계수(Chronbach's α)는 .88이었다.

자기 불일치

자기 불일치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인 자존감 평가영역 중요도 및 만족도 척도(이동귀, 양난미, 박현주, 2013)를 사용하였다. 한국인 자존감 평가영역 만족도 척도는 중요도 척도와 같이 사회적·객관적 능력, 긍정적 성품, 대인관계, 가족 영역에 관한 29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동귀 등(2013)에 따라 ‘중요하다’는 표현을 ‘만족한다’로 바꾸어 각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예: 나는 내 학벌에 만족한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점)’부터 ‘매우 만족한다(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에서의 실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변인인 자기 불일치는 사회적·객관적 능력 중요도 점수에서 만족도 점수를 뺀 값으로 측정하였다. 점수 차가 클수록 개인이 외적 영역에 부여한 중요성과 실제 경험하는 만족도 간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객관적 능력 만족도의 신뢰도 계수(Chronbach's α)는 .87이었다.

자존감 안정성

장재원과 신희천(2011)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자존감의 안정성 척도를 사용하여 자존감 안정성을 측정하였다. 해당 척도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는 자주 변화한다”, “나의 자존감은 기분에 따라 쉽게 변한다” 등의 10문항으로 이루어진 단일척도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 안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h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물질주의

물질주의 측정을 위해 Richins와 Dawson(1992)이 개발한 Material Values Scale을 유지혜와 설경옥(2018)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물질주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물질주의 척도는 세 하위척도의 총 15문항으로, 물질적 소유를 성공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성공판단(예: 내가 소유한 것들은 내가 얼마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준다) 6문항, 삶에서 물질의 소유와 획득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나타내는 소유중심(예: 쇼핑은 내게 큰 기쁨을 준다) 7문항, 물질의 소유와 획득이 행복한 삶의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하는 행복추구(예: 더 많은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주어진다면 나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물질주의 가치를 더 많이 추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hronbach's α)는 성공판단 .76, 소유중심 .73, 행복추구 .70이었다.

분석절차

IBM SPSS 23.0과 Mplus 7.4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 절차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자료의 적절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척도별 신뢰도 계수(Chronbach's α)를 산출하여 연구에 사용된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일관적으로 측정하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셋째, Pearson 상관계수를 분석하여 주요변인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넷째,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안정적

인 추정을 위해 지표변수에 대하여 문항묶음을 실시하였다. Mplus 프로그램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인의 일차원성을 확보하였으며 묶음화 방식으로는 요인 알고리즘 방식과 내용기반 접근을 따랐다. 단일척도인 자존감 안정성 변인은 요인 알고리즘 방법에 따라 오차를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세 꾸러미를 만들었다. 물질주의 변인은 세 하위구인에 따라 성공판단, 소유중심, 행복추구의 세 꾸러미를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구조모형의 적합도 및 각 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부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적합도 평가는 χ^2 검정과 CFI, SRMR, RMSEA 지수에 근거하였다. CFI가 .95 이상이고 SRMR이 .08 이하이며(Hu & Bentler, 1999) RMSEA가 .05 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라고 판단하였다(Browne & Cudeck, 1992). 부스트래핑의 경우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았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변인의 일반적 특성 및 자료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과 최댓값,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모든 변인의 왜도의 절대값은 3 이하, 첨도의 절대값은 10 이하로 자료가 정규성을 만족한다고 보았다(Kline, 2011). 다음으로 Pearson 상관분석 결과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은 자기 불일치 및 물질주의와 정적 상관을, 자존감 안정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 불일치는 자존감 안정성과 부적 관계, 물질주의와 정적 관계였다. 자존감 안정성은 물질주의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모든 변인의 상관계수의 절대값은 .65 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의심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의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N = 465)

	1	2	3	4
1.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	1			
2. 자기 불일치	.65**	1		
3. 자존감 안정성	-.32**	-.46**	1	
4. 물질주의	.47**	.57**	-.37**	1
평균	-.15	.17	3.03	2.92
표준편차	.31	.83	.81	.57

** $p < .01$

구조모형 분석결과

본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df = 15, n = 465) = 42.198$ ($p < .001$), $\chi^2/df = 2.813$, SRMR = .038, CFI = .984, RMSEA = .062였다. χ^2 검정 결과 영가설이 기각되지만, χ^2 값은 표본크기에 민감한 경향이 있다. 이를 보완할 다른 적합도 지수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므로 본 연구모형은 자료를 잘 설명한다고 여겨진다. 적합도에 이어 각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은 자기 불일치($\beta = .654, p < .001$)와 물질주의($\beta = .193, p < .01$)를 각각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을수록 해당 영역에서 더 많은 불일치

를 경험하고 물질주의를 더 많이 추구하게 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자기 불일치는 자존감 안정성을 부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고($\beta = -.441, p < .001$) 물질주의를 정적으로 예측하여($\beta = .458, p < .001$) 외적 영역에서 자기 불일치를 경험할수록 자존감 안정성은 낮고 물질주의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존감 안정성은 물질주의를 부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여($\beta = -.091, p < .001$) 자존감 안정성이 높을수록 물질주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은 자존감 안정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부스트래핑을 실시하여(5,000회 반복 추출)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물질주의의 관계에서 자기 불일치와 자존감 안정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자

표 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유의도 검증 결과 (N = 465)

경로	B	S.E.	C.R.	β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 → 자기 불일치	1.747	.097	17.929***	.654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 → 자존감 안정성	-.065	.057	-1.151	-.024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 → 물질주의	.388	.118	3.295**	.193
자기 불일치 → 자존감 안정성	-.449	.044	-10.109***	-.441
자기 불일치 → 물질주의	.345	.037	9.348***	.458
자존감 안정성 → 물질주의	-.067	.015	-4.543***	-.091

** $p < .01$, *** $p < .001$.

표 3. 매개효과 검증 결과 (N = 465)

경로	B	95% 신뢰구간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 → 자기 불일치 → 물질주의	.602	.470 ~ .723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 → 자존감 안정성 → 물질주의	.004	-.004 ~ .012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 → 자기 불일치 → 자존감 안정성 → 물질주의	.053	.029 ~ .078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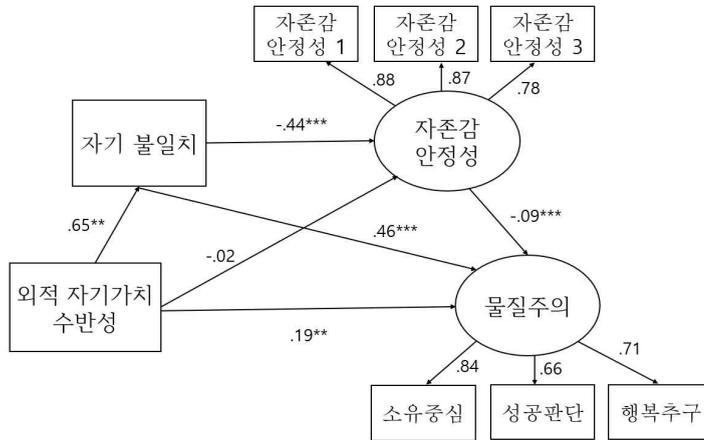


그림 4. 구조방정식 모형의 검정 결과 (표준화 계수)

기 불일치를 매개로 물질주의를 정적으로 예측하는 경로는 95% 신뢰구간(.470, .723)이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자존감 안정성을 매개로 물질주의를 예측하는 경로는 95% 신뢰구간(-.004, .012)이 0을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자기 불일치와 자존감 안정성을 매개로 물질주의를 예측하는 경로는 95% 신뢰구간(.029, .078)이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종합하면 물질주의에 대한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의 간접효과는 자기 불일치를 통해서만 유의했으며 자존감 안정성이 단독으로 매개하지는 못했다.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논 의

지난 수십 년간 물질주의가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누적됐으나 우리 사회는 물질주의 가치를 더욱 선호하는 쪽으

로 변화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Donnelly 등 (2016)의 도피이론을 적용하여 대학생의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물질주의 추구로 이어지는 기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도피이론 1, 2, 3단계를 적용하여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물질주의의 관계를 자기 불일치와 자존감 안정성이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를 근거로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 자기 불일치, 자존감 안정성, 물질주의 간 각각의 직접·간접경로 또한 유의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은 자기 불일치를 매개로 물질주의를 유의하게 예측했을 뿐 아니라 자기 불일치와 자존감 안정성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물질주의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을수록 개인은 이상과 실제 자기 간의 불일치를 더 많이 경험하고, 이로 인해 자존감이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상태를 보상하고자 물질주의를 더욱 추구하고 하게 되었다. Donnelly 등(2016)의 도피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1단계로 과도하게 높은 삶의

기준을 세우고 잦은 좌절과 불만족을 경험하며 2단계로 자신을 비난하게 된다. 이어서 3단계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과도하게 의식하며 혐오적 자기인식에 빠지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높은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도피 이론의 1단계, 그로 인한 자기 불일치 경험이 2단계, 불안정한 자존감이 3단계에 해당한다고 개념화하고 해당 변인들이 순차적으로 물질주의를 예측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개인이 부족한 자기개념을 보상하기 위해 물질을 추구하고(설경옥 등, 2019; Chang & Arkin, 2002; Kasser et al., 2004; Reeves et al., 2012) 부정 정서로부터 도피하고자 무절제한 구매를 한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다(Dittmar, Long, & Bond, 2007).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은 자기 불일치 및 물질주의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대학생이 외모, 성적, 경제력, 평판 등 외적 요소로 자기가치를 확인할수록 자기 불일치를 더 많이 느끼고 물질주의를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개인이 외적 영역에서 자기 가치를 확인할수록 성취의 기준은 높아지는 반면(최대성, 황순택, 2016) 긴장과 압박, 부정 정서를 쉽게 느끼고 도전을 회피하게 되어 수행 능력이 감소한 결과 자기 불일치를 경험하였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Crocker & Knight, 2005; Ryan & Deci, 2006). 또한, 이는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물질주의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다(Nagpaul & Pang, 2017). 선행연구에서는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 중 학업적 유능감이 물질주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측정에서 제외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적과 학벌을 포함한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물질주의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문화권마다 받아

들이는 학업의 의미가 다르며, 한국의 경우 학업 관련 정체감이 외모, 경쟁, 사회적 승인과 비슷한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은 자존감 안정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음에도 자존감 안정성을 직접 예측하지 못하였다. 자존감 안정성은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물질주의 간 관계를 단독으로 매개하지 못하고 선행요인인 자기 불일치를 통해서만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이를 통해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높더라도 모든 사람의 자존감이 불안정한 것은 아니며, 자기 불일치를 경험할 때 불안정해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자기 불일치는 외적 영역에서 개인의 실패 경험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가치 수반성만으로는 자존감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고 해당 영역에서의 실제 경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며(Crocker & Park, 2003; Kernis, 2005) 자존감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자기 불일치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 자체는 해당 영역의 성취동기를 높이는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자기 불일치는 물질주의를 정적으로 예측하여, 외적 영역에서 대학생의 자기 불일치가 클수록 물질주의를 더 강하게 추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과 실제 자기의 불일치는 결핍감을 유발하고 개인은 이러한 부정 정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된다. 이때 상징적 물품을 소유함으로써 자기 불일치를 줄일 수 있다고 믿어 물질주의를 추구하게 된다. 단순히 소유했다는 만족감을 넘어 물질은 한 개인의 정체성을 보완하고

재정립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 결과는 개인의 자기 불일치가 클수록 충동구매를 많이 하였으며(Dittmar, 2005) 자기 불일치가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에서 지위 관련 물품 구매 시 더 큰 행복을 느꼈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Yu et al., 2016).

본 연구의 의의는 물질주의 추구 과정에 Donnelly 등(2016)의 도피이론을 적용한 선행연구(설경옥 등, 2019)와 변인을 달리하고 적용 단계를 확장하여 도피이론의 경험적 근거를 더한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물질주의의 선행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자기 불일치, 자기개념 불확실성 등 결핍된 자기가 물질주의 추구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축적된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그러나 결핍된 자기개념이 형성된 맥락적 요인을 탐색한 연구는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 예측변인으로 제시한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은 개인이 외적 영역에서 높은 기준을 내사하여 자기 불일치 및 불안정한 자존감을 경험하도록 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고, 결과적으로 물질주의 추구로 이어졌다. 자기가치를 확인하는 준거 영역과 각 영역에 대한 중요도는 부모를 비롯한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데, 특히 부모의 자녀 교육열망과 학업성취에 대한 압력은 자녀가 외적 영역에 기반한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을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학업성취가 계층 상승의 수단이라는 믿음은 과도한 교육열로 이어졌으며, 성취에 대한 무조건적 공정은 오늘날 지배적인 능력주의와 밀접하다. 이처럼 능력주의 사회에서 성장한 개인이 외적 성취로 자기를 확인하는 데 익숙해지고 물질 추구로 결핍을 메우려 한다면 물질주의와 능력주의 기조는 계속해서 심화될 것이다. 본 연구는 개인이 자신을 부족

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부적응적인 물질 추구로 이어지도록 하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물질주의 개입에 단서를 제공한다. 높은 물질주의는 정신적 부적응을 예측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도피이론의 각 단계는 인과적으로 이어지므로 한 단계에서 문제가 적절히 다뤄진다면 다음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이 자기 불일치, 자존감 불안정성을 거쳐 단계적으로 물질주의를 예측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1단계로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에 개입하는 방법이 있다. 개인은 스스로 혹은 상담 장면에서 자기가치가 수반된 영역을 탐색하고 외적 영역에 치우쳐 있다면 내적 영역으로 초점을 이동하는 등, 자기가치의 근거를 다양한 영역에 두고자 노력할 수 있다. 2단계로 자기 불일치에 개입하는 방법이 있다. 자기 불일치가 물질주의로 이어지는 상황은 외적 영역에서 세운 기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실제 수행이 저조한 경우, 혹은 두 경우 모두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적응적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실제 수행을 장기적으로 개선하여 자기 불일치를 감소시키려는 시도가 가능할 것이다. 이상의 개입 단서들은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므로 개입 순서와 관계없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2단계에 개입하여 자기 불일치가 효과적으로 감소한다면, 그 결과 3단계인 자존감 안정성이 유지되어 물질주의 추구로 덜 이어질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 첫째, 자기보고식 자존감 안정성 척도가 구인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Kernis(2003)의 자존감의 불안정성 척도는 자존감 안정성 연구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척도다. 해당 척도는 하루에 두 번씩 5일 동안 자존감 수준을 측정하고, 10개 측정치의 표준편차값으로 자존감 안정성을 측정하여 객관성을 확보한다. 본 연구의 자기보고식 자존감 안정성 척도는 Kernis의 것보다 보고의 객관성이 떨어지며 긍정적, 부정적 편파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척도는 Kernis의 척도와 수렴 타당도를 확보하였으며 변화 정도에 대한 자신의 인식 역시 자존감 안정성의 중요한 특성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장재원, 신희천, 2011).

둘째, 이 연구에서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은 외적 영역 중요도의 평균에서 전체 중요도의 평균을 뺀 점수로 측정하였다. 삶에서 중요한 여러 가치가 함께 제시될 때 해당 가치의 상대적 중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의 방식을 따랐으며(Han, Kim & Park, 2018; Sheldon & McGregor, 2000) 이는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 본 연구목적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는 외적 영역의 중요도와 전체 중요도가 모두 낮은 사람과 모두 높은 사람이 같은 값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 점수가 같더라도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차를 변별하기 위해서 추후 더 정교한 측정방식이 고안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이자 상관연구이기에 변인 간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개념 관련 결핍이 물질주의를 예측한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발달 단계상 개인은 아동기부터 자기개념을 형성하고 형식적 조작기 이후로 물질주의를 포함한 가치관

을 정립하므로 자기개념이 물질주의에 선행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물질주의가 외모주의를 정적으로 예측하며(김현지, 이지현, 권혜중, 설경옥, 2019) 심리적 안녕감 및 자존감을 부정적으로 예측한다(McCardle & Speck, 2019)는 선행연구를 고려하면 본 연구 결과와 반대로 물질주의가 외적 자기가치 수반성을 예측할 가능성도 있다. 마찬가지로 도피이론 모형에 따라 자기 불일치가 자존감 안정성에 선행한다고 가정하였으나, 도피이론의 각 위험요인이 선형적으로 발생하기보다 동시다발적으로 상호작용함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진미령, 신성만, 2016). 따라서 본 연구모형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종단연구 또는 실험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도피이론의 6단계 중 일부 3단계를 검증하였다. 이론의 일부 단계를 검증한 선행연구(설경옥 등, 2019; Kwon, Chung, & Lee, 2011)와 같이 본 연구도 문제 현상의 초기 과정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을 것이나, 후속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4단계 및 인지적으로 와해되는 5단계를 포함한 도피이론 모형으로 물질주의 추구 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경미 (2014). 대학생의 물질주의와 주관적 안녕감 및 대학생활 만족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10), 295-314.
- 김대현, 박기환 (2019). 부정적 완벽주의와 부정적 정서의 관계: 성취관련 자기 불일치와 속박감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9(4), 467-488.

- 김민정 (2016). 자존감 2요인 모델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3), 411-434.
- 김유연, 박성연 (2001). 부모 양육태도 및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물질주의 가치관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1-13.
- 김현지, 이지현, 권혜중, 설경옥 (2019). 성인 초기 여성의 물질주의, 외모주의와 성형수용태도 중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2(4), 83-101.
- 박선웅, 박예린 (2019). 불확실한 정체성과 낮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물질주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3(2), 1-21.
- 박재홍, 강수택 (2012). 한국의 세대 변화와 탈물질주의: 코호트 분석. *한국사회학*, 46(4), 69-95.
- 박진영, 최혜원, 서은국 (2012). 물질주의와 인간관계 경시의 심리적 원인: 낮은 일반적 신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1), 23-36.
- 설경옥, 박민경, 안은지, 김지영, 백상은 (2019). 도피이론으로 검증한 성인 초기 여성의 완벽주의, 자존감 그리고 물질주의 추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3(1), 1-18.
- 설경옥, 황다솔, 홍성혜, 주리나 (2017). 초기 성인기 여성의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연예인 숭배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 내재화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3(4), 475-495.
- 유지혜, 설경옥 (2018). 한국판 물질주의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3), 385-410.
- 이동귀, 양난미, 박현주 (2013). 한국형 자존감 평가영역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1), 271-298.
- 이수란, 이동귀 (2008). 자존감의 영역별 수반성과 자기 평가 간 불일치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313-335.
- 장재원, 신희천 (2011). 자존감의 안정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635-654.
- 정선태, 홍혜영 (2016). 자기불일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존감 유형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3(9), 1-25.
- 조하정, 이다예, 박선웅 (2021). 학업성취압력과 물질주의 간의 관계에서 정체성 명확성의 조절효과: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5(3), 27-45.
- 진미령, 신성만 (2016). 애착외상, 자아존중감, 우울,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도피이론(Escape Theory)'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중독*, 1(1), 31-53.
- 최대성, 황순택 (2016). 완벽주의, 자기가치 수반성과 자기평가 간 불일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2(2), 163-181.
- 최병섭, 이지연 (2019). 대학생의 물질주의, 외모주의, 사회비교, 외모만족도, 우울의 구조적 관계분석. *아시아교육연구*, 20(4), 1039-1063.
- 한동현, 조영아 (2017). 대학생의 자기불일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타인인정욕구와 자존감 안정성의 매개효과. *재활심리연구*, 24(3), 473-491.
- Baumeister, R. F. (1990). Suicide as escape from

- self. *Psychological Review*, 97(1), 90-113.
- Bardone-Cone, A. M., Lin, S. L., & Butler, R. M. (2017). Perfectionism and contingent self-worth in relation to disordered eating and anxiety. *Behavior Therapy*, 48(3), 380-390.
- Belk, R. W. (1988). Possessions and the extended self.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5(2), 139-168.
-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 Chang, L., & Arkin, R. M. (2002). Materialism as an attempt to cope with uncertainty. *Psychology & Marketing*, 19(5), 389-406.
- Cho, H. J., Jin, B., & Watchravesringkan, K. T. (2016).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materialism in emerging and newly developed Asian markets.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Humanities and Technology*, 1(1), 1-10.
- Crocker, J. (2002). The costs of seeking self-esteem. *Journal of Social Issues*, 58(3), 597-615.
- Crocker, J., & Knight, K. M. (2005). Contingencies of self-worth.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4), 200-203.
- Crocker, J., Luhtanen, R. K., Cooper, M. L., & Bouvrette, A. (2003). Contingencies of self-worth in college students: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5), 894-908.
- Crocker, J., & Park, L. E. (2003). Seeking self-esteem: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protection of self-worth. In M. R. Leary & J. P. Tangney (Eds.),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 (pp. 291-313).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Crocker, J., & Park, L. E. (2004). The costly pursuit of self-esteem. *Psychological Bulletin*, 130(3), 392-414.
- Crocker, J., Sommers, S. R., & Luhtanen, R. K. (2002). Hopes dashed and dreams fulfilled: Contingencies of self-worth and graduate school admiss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9), 1275-1286.
- Crocker, J., & Wolfe, C. T. (2001). Contingencies of self-worth. *Psychological Review*, 108(3), 593-623.
- Cunningham-Kim, M. A., & Darke, P. (2011). Because I'm worth it (and you're not): Separating the effects of narcissism and self-esteem on prestige purchase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38, 896-897.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 Dittmar, H. (2005). A new look at "compulsive buying": Self-discrepancies and materialistic values as predictors of compulsive buying tendenc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4(6), 832-859.
- Dittmar, H., Bond, R., Hurst, M., & Kasser, T.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nd personal well-being: A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7(5), 879-924.
- Dittmar, H., Long, K., & Bond, R. (2007). When a better self is only a button click away: Associations between materialistic values, emotional and identity-related buying motives,

- and compulsive buying tendency onlin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0*(3), 334-361.
- Donnelly, G. E., Ksendzova, M., Howell, R. T., Vohs, K. D., & Baumeister, R. F. (2016). Buying to blunt negative feelings: Materialistic escape from the self.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0*(3), 272-316.
- Fitzmaurice, J. (2008). Splurge purchases and materialism.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25*(6), 332-338.
- Flynn, L. R., Goldsmith, R. E., & Kim, W. M. (2013). A cross-cultural study of materialism and brand engagement. *Journal of Multidisciplinary Research, 5*(3), 49-69.
- Frost, R. O., Kyrios, M., McCarthy, K. D., & Matthews, Y. (2007). Self-ambivalence and attachment to possessions.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21*(3), 232-242.
- Han, G., Kim, J., & Park, S. W. (2018). Extrinsic value orientation and decreased sustainability of shared resources: The moderating role of situational characteristics. *Sustainability, 10*(7), 1-13.
- Hewitt, P. L., & Dyck, D. G. (1986). Perfectionism, stress, and vulnerability to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0*(1), 137-142.
-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3), 319-340.
- Hill, A. P., Hall, H. K., & Appleton, P. R. (2011). The multidimensional relationship perfectionism between and contingencies of self-worth.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2), 238-242.
- Jordan, C. H., & Zeigler-Hill, V. (2020). Fragile self-esteem. In Zeigler-Hill, *Encyclopedia of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pp. 80-98).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 Kasser, T., Ryan, R. M., Couchman, C. E., & Sheldon, K. M. (2004). Materialistic values: Their causes and consequences. In T. Kasser & A. D. Kanner (Eds.), *Psychology and consumer culture: The struggle for a good life in a materialistic world* (pp. 11-28).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Kernis, M. H. (2005). Measuring self-esteem in context: The importance of stability of self-esteem in psychological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73*(6), 1569-1605.
- Kilbourne, W. E., & LaForge, M. C. (2010). Materialism and its relationship to individual values. *Psychology & Marketing, 27*(8), 780-798.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Kwon, J. H., Chung, C. S., & Lee, J. (2011). The effects of escape from self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n the pathological use of Internet game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47*(1), 113-121.
- Mason, T. B., Smith, K. E., Engwall, A., Lass, A., Mead, M., Sorby, M., Bjorlie, K., Strauman, T. J., & Wonderlich, S. (2019). Self-discrepancy theory as a transdiagnostic framework: A meta-analysis of self-discrepancy and psychopathology. *Psychological Bulletin, 145*(4), 372-389.
- McCardle, J. G., & Speck, S. S. (2019). A

- comparative study of social comparison, materialism, and subjective well-being in the US, China, Croatia, and India. *Journal of Business Diversity*, 19(5), 68-87.
- Moulding, R., Duong, A., Nedeljkovic, M., & Kyrios, M. (2017). Do you think that money can buy happiness? A review of the role of mood, materialism, self, and cognitions in compulsive buying. *Current Addiction Reports*, 4(3), 254-261.
- Nagpaul, T., & Pang, J. S. (2017). Extrinsic and intrinsic contingent self-esteem and materialism: A correlational and experimental investigation. *Psychology & Marketing*, 34(6), 610-622.
- Noser, A., & Zeigler-Hill, V. (2014). Self-esteem instability and the desire for fame. *Self and Identity*, 13(6), 701-713.
- Park, J. K., & John, D. R. (2011). More than meets the eye: The influence of implicit and explicit self-esteem on materialism.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21(1), 73-87.
- Reeves, R. A., Baker, G. A., & Truluck, C. S. (2012). Celebrity worship, materialism, compulsive buying, and the empty self. *Psychology & Marketing*, 29(9), 674-679.
- Richins, M. L., & Dawson, S. (1992). A consumer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3), 303-316.
- Roberts, J. A., Manolis, C., & Pullig, C. (2014). Contingent self-esteem, self-presentational concerns, and compulsive buying. *Psychology & Marketing*, 31(2), 147-160.
- Ryan, R. M., & Deci, E. L. (2006). Self-regulation and the problem of human autonomy: Does psychology need choice, self-determination, and will?. *Journal of Personality*, 74(6), 1557-1586.
- SabzehAra, M., Ferguson, Y. L., Sarafraz, M. R., & Mohammadi, M. (2014). An investigation of the associations between contingent self-worth and aspirations among Iranian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4(1), 59-73.
- Shan, J., Jiang, L., Peng Cui, A., Wang, Y., & Ivzhenko, Y. (2021). How and when actual-ideal self-discrepancy leads to counterfeit luxury purchase intention: A moderated mediation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43(3), 818-830.
- Sheldon, K. M., & McGregor, H. A. (2000). Extrinsic value orientation and "the tragedy of the commons". *Journal of Personality*, 68(2), 383-411.
- Yu, Y., Jing, F., Su, C. T., Zhou, N., & Nguyen, B. (2016). Impact of material vs. experiential purchase types on happiness: The moderating role of self-discrepancy. *Journal of Consumer Behaviour*, 15(6), 571-579.
- Zhang, Y., & Hawk, S. T. (2022). I buy stability in a buying world: Social norms about materialism moderate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self-esteem stability and materialistic valu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4, 1-12.

논문 투고일 : 2022. 01. 20
1차 심사일 : 2022. 01. 22
2차 심사일 : 2022. 07. 04
게재 확정일 : 2022. 07. 29

The Relationship between External Contingencies of Self-Worth and Materialism of Undergraduates: Self-Discrepancy and the Stability of Self-Esteem as Mediators

Jiyun Shin

Kyoung Ok Seol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imed to empirically verify the materialistic pursuits process of undergraduates by applying the escape theory of materialism(Donnelly et al., 2016). Among the six steps of Donnelly's model, the first step is perceiving that the fall short of high standards of life, as measured by external contingencies of self-worth. The second step is blaming the self for falling short of standards, as measured by self-discrepancy. The third step of high aversive self-awareness is measured by low stability of self-esteem. A total of 465(203 male and 262 female)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online survey and the model was test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We found that the relationship of external contingencies of self-worth and materialism was mediated by self-discrepancy and there was a sequential mediation effect of self-discrepancy and the stability of self-esteem. The direct effect of external contingencies of self-worth on materialism was also significan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used the escape theory to empirically verify the materialistic pursuit process of Korean undergraduates living in a meritocratic society.

Key words : materialism, external contingencies of self-worth, self-discrepancy, stability of self-esteem, escape theory